

##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문득 이런생각을 해본다. 내가 극작가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분야는 사람과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하는 분야이기때문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삶에 어려운 상황, 때로는 극단적인 어려운상황의 사람들에게서 볼수있는 치장과 위선이 있을수없는 가장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들을 대해야하는 입장이기에 나는 사람과 삶에대해 늘 긴장하며 진솔하게 대면하며 살아야하기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것이다.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말은 절대아니다 .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노력이나 거짓들이 내게는 그대로 보여지며 거기에서 사람의 숨겨진 의도와 마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에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표현 하는것 뿐인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것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을 늘 대면하며 일을 하는 나는 지금내가 돕고 있는 노력과 정성의 결과가 과연 내가 늘 바라고 기대하는 목적, 즉 상대의 삶의 가치와 질의 변화 를 이루겠는가라는 것에 늘 도박을 하는 심정이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는 출감후의 성공적인 사회적응, 검정 고시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섰던 자리에 다시돌아가 정상적인 학업과 가정의 관계회복, 피상담자들에게는 문제해결을 통한 자신의 존재가치회복을 인한 의미있는 삶등이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고백한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있을수있다 라는것이다. 즉 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한마디로 실패라고 밖에 말할수없는 결과가 올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수밖에 없는것은 천상의 시나리오 즉, 나의 기대와 꿈을 초월하는 결과들 , 내 자신도 믿지지 않을만큼의 결과들을 내 주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는 그 증거들이 내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게 케이스중 또 다른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교도소에서 우연히 온 전화의 절박함의 그 목소리에서 빠져나올수 없었던 나는 그 1 주일이 마치 007 작전이 무색할정도의 숨가쁘고 숨이 목에 차오르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하면서 뉴멕시코의 이민국에 있는 한재소자를 한교회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구해 보석을 시켰다. 다른일을 다 제쳐놓고 이일에만 매달리며 다 해결을 해놓고 마지막 보석시키는 이민국에서 꼬박 하루종일을 기다리며 나는 내게 묻는다. 왜 이렇게 해야하는가? 얼굴도, 그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나 내가슴은 대답한다. 그사람의 삶의 질과 가치를 찾게 하기위해서라고... 그런 그녀가 우여곡절끝에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처음대면인것이다. 그리고는 횡설수설 형식적인 인사만을 남기고 주소도 전화번호도 주지 않은채 곧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그녀가 절박한 어려운 상황이 되기전에는 연락을 안할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이케이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것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한참(40 일)을 지났다. 1월 1일 나는 그녀의 처음 전화보다 더형편없이 절박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동거남에게 몹시 심하게 구타를 당해 실신상태에 있다는 전화이다. 그녀를 픽업해 경찰서로, 병원으로 그리고 무숙자를 위한 한인 쉼터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면서 나는 내게 또 질문한다.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만을 위해 돕는것을 뛰어넘어 이사람의 건강하고 질있는 삶을 향해 , 나가서는 자기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갈수있도록 본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하는 나는 이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하는가라는 ...내게 지난 16 년동안 끊임없이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부분인것이다. 피상담자들에게 beggar mentality(입고 먹는 필요만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를 만들어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때로는 이들에게 아픔과 불편을 느끼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진정한 존재가치를 찾아나가게 하는 일을 해야한다는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설수있는 용기가 있어야하는것을 사람과 일을 통해서 배우는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